

### 창전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평양에 또 하나의 새 거리가  
활짝 열렸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통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업덕으로부터 대동강기  
슌을 따라 형성된 창전거리에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  
사상을 구현한 인민극장과 초고  
층, 고층살림집들, 각종 봉사시  
설들이 화려하게 솟아올랐으며  
조형화, 예술화, 공원화가 훌륭  
히 실현되었다.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  
의문명국의 면모가 집대성되고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 미  
래관으로 일관된 창전거리의 새  
모습은 순결무구한 김정일에국주의  
의 고귀한 정화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  
신 수도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드세찬  
총공격을 벌려 만수대지구에  
건축 및 거리형성의 모든 요소들  
을 완벽하게 갖춘 거리를 단 1년  
만에 일떠세우는 새로운 평양속  
도, 건설사에 일찌기 없는 기적  
을 창조하였다.

창전거리의 완공은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현명한 령  
도와 애국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정의 일련단심  
이 낳은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천지개벽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새  
세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활  
룡히 일떠선 창전거리 준공식이  
20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준공식  
장에 모셔져있었다.

준공식 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  
상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  
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건설년  
을 빛나게 실현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  
자!》, 《수도 평양을 현대적이  
며 문화적인 도시로 더 잘 꾸리  
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준공식은 《김정일장군의 노  
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준공식에서는 창전거리건설에

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인  
민군장병들과 수도건설자들, 돌  
격대원들과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  
동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  
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최영림 내각  
총리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 전  
군, 전민이 새로운 주제100년대  
의 장엄한 대진군을 다그치고있  
는 력사적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수도건설구  
상에 따라 훌륭히 일떠선 창전거  
리 준공식을 뜻깊게 진행하게 된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공동축하문을  
받아안은 지금 아버지장군님께 오  
늘의 이 천지개벽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장군님에 대한 사무  
치는 그리움에 넘쳐있다.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  
시려고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  
쳐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전거리건설을 몸소 맡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강력한 설계집단과 건설력량을  
꾸려주시고 건설설비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혁명적  
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창전거리건설  
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도  
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지난 5월 완공을 앞둔 창전  
거리를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초고층  
건물의 45층에까지 오르고 여  
러 살림집들의 내부를 돌아보시  
며 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치  
하해주시었으며 인민들이 이용할  
의자에도 앉아보시고 건축에서  
선 편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해 가르쳐주  
시면서 수도 평양을 인민들이 사  
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는 세계적  
인 도시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장

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은 창전거리건  
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과  
수도건설자들, 돌격대원들과 지원  
자들은 창전거리를 최단기간에 최  
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울 비상한  
각오를 안고 건설력사에 일찌기  
없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들고 당의 웅대한 수도건  
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보란듯이 일  
떠세우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  
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  
한 조국애와 인민사랑의 높은 뜻  
을 빛나게 실현한 창전거리건설  
자들의 영웅적위훈은 강성변영하  
는 조국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  
것이다.

참으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건  
설된 창전거리는 인민의 복리증  
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위대한 인민사

랑의 기쁨이며 김정일에국주의  
의 고귀한 결실이다.

연설자는 전체 건설자들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경  
모의 마음을 담아 강성변영하는  
선군조선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  
원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리었으며 천  
만군민을 한품에 안아 보살피  
시며 최후승리의 한길로 현명  
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게 최대의 영  
애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  
었다.

연설자는 전체 건설자들과 수  
도시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리러모  
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  
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  
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수도건설자들과 일군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을 웅장화하려  
한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한 투  
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선군시대  
의 평양변영기를 더욱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였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일군들은 창전거리건설의 나날에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을 총발동  
하여 당면한 살림집건설과 중심  
거리개건공사를 제기에 끝내기  
위한 돌격전을 계속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할것이다.

창전거리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들, 봉사시설운영을 맡은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건  
축물들과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정상화하고 봉사  
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이 수도시민들에게 언제나 뜨겁  
게 안겨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선군혁명령  
도따라 모두가 최후승리를 위한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데 대하  
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내각사무국 부국  
장 남인백, 조선인민군 장령 리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한 투  
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선군시대  
의 평양변영기를 더욱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였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동축하문을 받아안  
은 전체 건설자들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  
에 휩싸여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애와 인민사랑의 높은 뜻  
을 가슴깊이 새겨안았기에 건설  
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과 수도  
건설자들, 돌격대원들, 지원자들  
은 창전거리건설전투의 낮과 밤  
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  
아올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창전거리건설의 하루하루는 당  
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선군  
조선의 담력과 배짱을 힘있게 과  
시한 영웅적투쟁의 나날이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  
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았고 지혜와 열정을 합쳐 살림  
집을 한층층 쌓아올렸으며 봉  
사시설들과 지대정리공사를 힘있  
게 내밀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공동축하문에 제시  
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  
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 불타  
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서 높이 드신 불멸의 애국강령,  
김정일에국주의 기치따라 혁명  
의 수도 평양을 절세위인들의  
구상이 실현되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  
화하러 갈데 꾸려나갈것이라고 말  
하였다.

창전거리건설에서 발휘한 불굴  
의 정신력으로 집단적혁신의 불  
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최첨단  
과업을 힘있게 벌려 살림집건설  
을 비롯한 대상건설들을 불이 번  
쩍나게 해체함으로써 선군조선의  
기상을 계속 떨쳐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인민들이 아  
름답게 번모된 사회주의락원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  
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  
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평  
양을 강성조선의 수도답게 훌륭  
히 천변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  
에서 말은 본분을 다해나갈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  
되었다.

준공식은 《우리는 맹세한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당과 국  
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완공된  
살림집들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원산유희장이 새로 건설된다

원산시의 풍치수려한 해  
변가에 유희장이 새로 건설  
된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꾸려지는 유희장  
에는 주주비행선, 2중회전  
반, 회전그네, 합마치기 등  
현대적인 유희시설들이 갖  
추어지게 된다.

전자오락장, 수영관, 청

량유점들도 특색있게 건  
설되어 이곳을 찾는 근로자  
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웃음  
과 랑만속에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강  
원도의 인민들은 유희장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활  
룡히 꾸리기 위하여 한결갈

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공사시작부터 드세찬 공격  
전을 벌리고있다.

건설자들의 애국적헌신과  
창조적의의에 의하여 유희장  
이 제모습을 드러내고있다.

본사기자



질 좋은 수지연필을 더 많이 생산하고있다.  
—평양수지연필공장에서—

### 제2의 조선전쟁을 노린 무모한 군사적도발소동

조선반도에 전쟁의 포성이  
울린 때로부터 62년이 되어  
온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은 우리 겨  
레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뜨였다. 그  
가슴아픈 상처는 세월이 흘  
러도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뼈  
저린 교훈을 새겨주었다.

그때로부터 60여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반  
도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있고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  
지 모를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공화국은 지금까지 조선반  
도의 평화와 거래의 안전보  
장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전쟁의  
하루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고 정전협정을 함  
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시  
켜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벌려놓지 말데 대한 제안 등  
수많은 평화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노  
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공명  
정대한 평화제안들을 거부하  
고 남조선에서의 무력증강과

전쟁연습강화 등으로 평화에  
줄곧 도전해왔다. 지어 남조  
선에 1 000여기의 미국제 핵  
무기들을 끌어들이고 거래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 구  
름을 드리워왔다.

특히 친미골종이 골수에  
배인 남조선의 리명박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왔  
은 이후 미국과의 《동맹강  
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  
며 북침전쟁준비를 계단식  
으로 확대해온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얼마전 워싱턴에서 벌어진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의  
년내 구축 등 공화국을 반대하는  
김일형 군사적공조를 모의한  
데 이어 6월 21부터 22일까  
지 제주도 남쪽해상에 미,  
일, 남조선연합해상훈련을  
벌려놓았다. 그에 뒤이어 서  
해에서는 미핵항공모함 《조  
지 워싱턴》 호전단의 참가  
에 미남조선연합해상훈련  
을 벌려놓고있다.

한편 남조선군부호전광들  
은 올해 백수십억US\$의 막  
대한 자금을 들이밀어 미국  
으로부터 동족을 선제타격하

기 위한 미사일과 직승기,  
무인정찰기, 정밀유도화산  
탄을 비롯한 첨단무기들과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하고있으며 상  
전에게 빌붙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려고 급급  
하고있다.

이것은 제2의 조선전쟁발  
발을 노린 위험천만한 군사  
적도발소동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극심한 경제공황과 채무위  
기로 허덕이고있다. 여기  
에서 출몰로 전쟁에서 찾  
아려는 미국의 대아시아태평  
양지역을 해외군사작전의 중  
심무대로 설정하고 이 지역  
을 지배하기 위해 무력증강  
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한편 동족대결판이 골수  
에 사무친 남조선보수당국의  
심리태를 적극 리용하여 그들  
을 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돌  
격대로, 대표함으로써 내몰아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야망  
을 손쉽게 실현하려고 펴고  
있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상전과 결탁한 리명박 《정  
권》이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것도 미국의 대아시아제패  
전략에 더욱 추종하는 대가  
로 상전의 환심을 얻어 친미보  
수 《정권》을 연장하려는 단

말마적발악이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미국  
의 대아시아지배전략에 편승  
해나선 남조선보수당국이 미  
국, 남조선, 일본을 포괄하  
는 《3각군사동맹》 조작책  
동에 가담하여 조선반도와 지  
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위험천  
만한 군사적도발을 벌림으로  
써 우리 겨레는 물론 주변나  
라들의 경제기초와 반발을 불  
리시키고있는것이다.

최근 우리 민족과 아시아  
인민들의 피로 물든 일장기  
를 휘날리며 동분서주하는  
일본의 해외팽창책동과 군  
사대국화책동은 위험계선을  
철쭉 넘어가고있다.

일본이 최근 남조선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호상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있는것도 미  
국의 주도하에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  
며 조선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무력의 조선반도  
진출을 합법화하자는데 불  
순한 의도가 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자기  
땅을 미군의 범참기지, 출  
격기지, 후방기지로 내맡기  
여 침략전쟁을 음모로양으  
로 도와준 일본이 이제는 팔  
을 걷고 재침의 길에 본격

적으로 뛰어들려 하고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날 우리 민족  
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들 강요한 백년속적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  
선보수당국이 일본과 손잡고  
동족을 해칠 군사적도발소  
동을 벌리는것은 극악한 매국  
노, 회색의 전쟁광신자가 아  
니고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다.

미, 일, 남조선 《3각군사  
동맹》 조작이 현실화되여가  
고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  
는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악화시키는 시발점은 어디  
에 있으며 장본인은 누구인  
가 하는것을 적라라하게 밝  
히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  
력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  
를 격화시키는 무모한 군사  
적도발소동을 당장 견어치워  
야 한다. 호전세력들이 자기  
의 신성한 령도를 조금이라  
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한 징  
벌을 가하려는것은 공화국  
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  
이다. 도발자들은 공화국의 경  
고를 무시해 대하지 말고 전  
쟁열에 들뜬 머리를 식혀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호















#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거리 - 창전거리의 새 모습



##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 최흥희선생서거 10돐 추모 행사 진행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 최흥희선생서거 10돐 추모행사가 15일 애국렬사릉에서 진행되었다.

추모행사에는 장웅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의 부인 한춘희와 일행, 국제태권도련맹대표단,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김진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 최흥희선생에 대한 해설강의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들으며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친 애국지사이며 이름있는 활동가인 선생의 생애를 돌아보았다.

이어서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 최흥희선생에 대한 해설강의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들으며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친 애국지사이며 이름있는 활동가인 선생의 생애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중근에국렬사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할빈)역에서 조선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를 처단함으로써 조선민족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적의 강민족이 되며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려사.

안중근렬사의 의지가 있을 때로부터 한세기가 지났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남포시 와우도구역에는 안중근선생이 교편을 잡았던 학교(오늘의 남흥중학교)가 있다. 이 학교에 오늘날도 력력히 남아있는 려사들의 자취는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애국의 넋을 심어주고 있다.

남흥중학교 교장 송정실은 우리에게 애국렬사의 넋이 깃든 학교의 연혁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원래 해주에서 살고있던 안중근은 나라의 흥망은 청년들에게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서 1906년 가족과 함께 남포로 이사와서 집재산을 통털어 학교를 세웠다고 한

다. 그리고 학교이름도 청년들이 일제를 끝없이 미워하고 반일사상과 풍부한 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삼흥학교라고 달았다고 한다.

《일제는 안중근선생이 세웠던 삼흥학교를 허물고 야마도정신을 우리 조선학생들에게 주입시킬 목적으로 1937년 11월 풍정소학교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때부터 운동회날이나 등산가는 날이면 폭풍 비가 오곤 했습니다. 향간에서는 일제가 안중근선생이 세웠던 학교를 허물고 풍정소학교를 건설하는 과정에 구멍이 나갔는데 삼으로 내리쳐서 죽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것이라고, 안중근선생의 애국충정을 무참히 짓밟았기때문에 일어난 하늘의 조화라는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일제는 풍정소학교를 세우면서 학교로 들어가는 다리에 〈야마도하시〉라는 일본글자를 새겨 돌문주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 돌문주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일제의 민

족말살책동을 잘 보여주고있지요.》

2010년 9월 29일 남흥중학교에서는 《대화교》라는 일본글자가 새겨진 돌문주 한개가 또다시 발견되었다.

《대화》라는 말은 일본말로 《야마도》라고 한다.

학교를 허물다 못해 거기에 깃든 애국렬사의 넋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책동은 이렇듯 중요하였다.

하나 일제는 우리 민족의 애국심을 짓밟을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1945년 삼흥학교는 자산인민학교로 새로 일터졌고 남포제1인민학교, 남포제6중학교를 거쳐 1958년부터 오늘날까지 남흥중학교로 불리게 되었다.

1965년 3월 아버지수령님께서 안중근의 서거 55돐을 맞으며 이 학교에 《애국렬사 안중근선생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시었다. 그후 남포시민들속에서 사람들이 즐겨 찾아오는 좋은 자리에 안중근렬사의 기념비를 옮겨세우

는 미술가인 인민예술가이며 로력영웅인 로익화선생도, 가족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주인공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합선회배우도 모두 남흥중학교 졸업생들이랍니다.》

김일성상수상자이며 인민체육인 한필화도 이 학교 졸업생이다. 북과 남, 해외에 널리 알려진 체육선수였던 그는 학교선생님들로부터 안중근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라났다고 한다.

애국렬사의 넋이 깃든 학교의 자랑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본사기자 박원평

##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의 부인일행 만경대 방문,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국제태권도련맹 전 총재 최흥희선생의 부인 한춘희와 일행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일행은 또한 태권도성지중심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크나 큰 은정속에 풍치 아름다운 청춘거리에 조선식합각지분을 떠이고 웅장하게 일떠선 성지중심의 태권도력사관,

지식보급실, 훈련관 등을 돌아보았다.

이밖에 일행은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으며 태권도전당에서 우리 태권도사범들의 시범출연을 관람하였다.

본사기자

## 애국렬사의 넋이 깃든 교정

남포시 와우도구역 남흥중학교



외국어학습실에서





금 강 산 수 정 봉 에서 본 온 정 리 지 구

에로부터 우리 민족은 울긋불긋한 원색을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의 정서에 굳어진 색은 간색 다시말하여 두가지이상의 색이 혼합된 은근하고 부드러운 단색이다.

절대금물로 되어있었다. 시집갈 때 신부들이 흰색 옷을 입거나 돌생일이나 설날에 아이들에게 색동옷을 입히는것은 한번밖에 차례지지 않는 즐거운 날에 그들을 마음껏 기쁘게 해주려는 부모들의 욕망으로부터 나왔다.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기와 집역시 이러한 색조화의 대표적사례이다. 우리의 전통적외집은 곡심미나 그리며 뻗어나는 처마가 있어 그늘을 보강해주는 완충작용을 한다.

우리 민족은 겉소과 소박함을 제일로 여겨오고 자신의 행복보다 가정과 마을, 리 나라의 자연이 그대로 원으로 살아왔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울긋불긋한 색은 사치스러움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곧 개인인 영달을 꾀하는 수치스러운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사치스러운 색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신명(하늘과 땅의 힘)의 색깔로 전해져 못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인정되면서 멀리해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색은 신명을 대신하는 왕이나 무당들만이 사용하는것으로 되어왔으며 단청도 왕궁이나 절들에만 입히는것으로 여기면서 일반서민들의 집에는

서를 반영한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달을 그려 벽에 걸거나 나무가지로 가리워 그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기와 집역시 이러한 색조화의 대표적사례이다.

우리 민족의 색정서

색이였으므로 구래일 일상생활속에 원색을 끌어들이는 필요를 느끼지 않은것과도 관련된다. 고려자기의 우수성의 하나가 그 은근한 색상에 있듯이 우리 민족의 공예품, 미술품들은 모두 깨끗하고 은근한 색상에 때문에 더 빛을 뿌린다.

옛문인들의 시조나 그림들에 안개와 달, 구름과 같은 자연현상을 담은것은 있어도 태양을 형상화한것은 극히 적는데 이것 역시 은근한것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정

채단시처럼 은근한 빛으로 방안을 조화시킨다. 그러나 유럽의 집들은 근본상 우리 식의 처마와 같은것이 없어 태양빛을 그대로 방안에 끌어들이며 창문도 빛을 그대로 받아들여 밝게 하다가 아니면 창가림으로 어둡게 한다.

색상에 반영된 이러한 민족적정서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단일민족으로 살아야 우리 민족의 고상함과 슬기로움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술의 종류가 다양한것만큼 술잔의 크기와 모양도 매우 각이하다고 한다. 술잔의 크기와 모양은 마시는 술의 알콜도수, 맛, 향에 따라 달라진다.

술잔의 크기와 모양은 마시는 술의 알콜도수, 맛, 향에 따라 달라진다. 술잔의 크기는 알콜농도와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알콜농도가 40%이상인 독한 술을 담는 잔은 아주 작지만 소주잔은 독한 술잔의 2배만 큼 크다.

《춘향전》은 실재한 사실

고전소설 《춘향전》은 1595년에 성이성이란 랑방이 한 처녀와 사랑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원형으로 하여 나왔다고 한다. 성이성의 후손들이 편찬한 《계서선생일기》와 《필원산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성이성은 어렸을 때 남원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전라도 남원에 갔으면서 한 기생의 딸과 사귀게 되었다. 수십년 세월이 지난 후 그는 암행어사가 되어 호남지역을 순찰하다가 남원에 들러 어린 시절의 애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처녀는 이미 죽고 없었다.

여러 관리들이 이 글을 둘러보고 의아해할 때에 아전들이 암행어사출두를 웨치며 달려들어오자 그들은 혼이 나서 모두 흩어졌다. 그날에 파직시킨 고을원은 6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력사기록으로 보아 《춘향전》이 실재한 인물인 성이성과 그가 어린 시절에 사랑했던 기생을 원형으로 하여 만들어진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술잔의 크기와 모양은 마시는 술의 알콜도수, 맛, 향에 따라 달라진다. 술잔의 크기는 알콜농도와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알콜농도가 40%이상인 독한 술을 담는 잔은 아주 작지만 소주잔은 독한 술잔의 2배만 큼 크다.

술잔의 크기와 모양은 마시는 술의 알콜도수, 맛, 향에 따라 달라진다. 술잔의 크기는 알콜농도와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알콜농도가 40%이상인 독한 술을 담는 잔은 아주 작지만 소주잔은 독한 술잔의 2배만 큼 크다.

술잔의 크기와 모양은 마시는 술의 알콜도수, 맛, 향에 따라 달라진다. 술잔의 크기는 알콜농도와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알콜농도가 40%이상인 독한 술을 담는 잔은 아주 작지만 소주잔은 독한 술잔의 2배만 큼 크다.

술잔의 크기와 모양은 마시는 술의 알콜도수, 맛, 향에 따라 달라진다. 술잔의 크기는 알콜농도와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알콜농도가 40%이상인 독한 술을 담는 잔은 아주 작지만 소주잔은 독한 술잔의 2배만 큼 크다.

술잔의 크기와 모양은 마시는 술의 알콜도수, 맛, 향에 따라 달라진다. 술잔의 크기는 알콜농도와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알콜농도가 40%이상인 독한 술을 담는 잔은 아주 작지만 소주잔은 독한 술잔의 2배만 큼 크다.

《춘향전》은 실재한 사실

고전소설 《춘향전》은 1595년에 성이성이란 랑방이 한 처녀와 사랑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원형으로 하여 나왔다고 한다. 성이성의 후손들이 편찬한 《계서선생일기》와 《필원산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성이성은 어렸을 때 남원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전라도 남원에 갔으면서 한 기생의 딸과 사귀게 되었다. 수십년 세월이 지난 후 그는 암행어사가 되어 호남지역을 순찰하다가 남원에 들러 어린 시절의 애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처녀는 이미 죽고 없었다.

여러 관리들이 이 글을 둘러보고 의아해할 때에 아전들이 암행어사출두를 웨치며 달려들어오자 그들은 혼이 나서 모두 흩어졌다. 그날에 파직시킨 고을원은 6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력사기록으로 보아 《춘향전》이 실재한 인물인 성이성과 그가 어린 시절에 사랑했던 기생을 원형으로 하여 만들어진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술잔의 크기와 모양은 마시는 술의 알콜도수, 맛, 향에 따라 달라진다. 술잔의 크기는 알콜농도와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알콜농도가 40%이상인 독한 술을 담는 잔은 아주 작지만 소주잔은 독한 술잔의 2배만 큼 크다.

술잔의 크기와 모양은 마시는 술의 알콜도수, 맛, 향에 따라 달라진다. 술잔의 크기는 알콜농도와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알콜농도가 40%이상인 독한 술을 담는 잔은 아주 작지만 소주잔은 독한 술잔의 2배만 큼 크다.

술잔의 크기와 모양은 마시는 술의 알콜도수, 맛, 향에 따라 달라진다. 술잔의 크기는 알콜농도와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알콜농도가 40%이상인 독한 술을 담는 잔은 아주 작지만 소주잔은 독한 술잔의 2배만 큼 크다.

술잔의 크기와 모양은 마시는 술의 알콜도수, 맛, 향에 따라 달라진다. 술잔의 크기는 알콜농도와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알콜농도가 40%이상인 독한 술을 담는 잔은 아주 작지만 소주잔은 독한 술잔의 2배만 큼 크다.

술잔의 크기와 모양은 마시는 술의 알콜도수, 맛, 향에 따라 달라진다. 술잔의 크기는 알콜농도와 반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알콜농도가 40%이상인 독한 술을 담는 잔은 아주 작지만 소주잔은 독한 술잔의 2배만 큼 크다.

환경산업이란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산업, 다시말하여 환경보호관리산업을 의미한다. 환경산업은 초기에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그후 환경산업은 포괄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및 환경효과성문제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현시기 환경산업은 환경보호설비생산, 청결상품생산, 환경보호봉사,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재활용 등의 영역을 포괄하고있다. 환경보호설비생산부문에 폐수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등을 생산하는

환경산업이란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산업, 다시말하여 환경보호관리산업을 의미한다. 환경산업은 초기에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그후 환경산업은 포괄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및 환경효과성문제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환경산업이란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산업, 다시말하여 환경보호관리산업을 의미한다. 환경산업은 초기에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그후 환경산업은 포괄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및 환경효과성문제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환경산업이란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산업, 다시말하여 환경보호관리산업을 의미한다. 환경산업은 초기에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그후 환경산업은 포괄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및 환경효과성문제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환경산업이란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산업, 다시말하여 환경보호관리산업을 의미한다. 환경산업은 초기에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그후 환경산업은 포괄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및 환경효과성문제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환경산업이란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산업, 다시말하여 환경보호관리산업을 의미한다. 환경산업은 초기에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그후 환경산업은 포괄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및 환경효과성문제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환경산업이란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산업, 다시말하여 환경보호관리산업을 의미한다. 환경산업은 초기에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그후 환경산업은 포괄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및 환경효과성문제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